

#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윤아, 권상우와 호흡

드라마 '신데렐라맨'



소녀시대의 윤아(시진)가 MBC 새 수목드라마 '신데렐라맨'에서 권상우와 호흡을 맞춘다.

11일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윤아는 '신데렐라맨'에서 디자이너 서유진 역을 맡을 예정이다. 윤아가 맡은 서유진은 파리의 유명 패션학교에 재학하던 중 아버지의 죽음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 한국에 돌아와 동대문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사는 캔디 캐릭터다.

동대문 패션가 이야기를 다루는 '신데렐라맨'은 '돌아온 일지매' 후속으로 4월 방송 예정이다.

**'돌아온 일지매' 정·일·우**

## ‘꽃남’ 대신 ‘남자’로 부활

요즘 소녀들은 평일 저녁 드라마에서 눈을 떼기 어렵게 됐다. 월·화요일에는 KBS 2TV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이민호가 가슴을 설레게 하고, 수·목요일에는 미끈한 외모의 정일우가 MBC TV ‘돌아온 일지매’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기 때문이다.

알려졌다시피 정일우와 이민호는 1987년생으로 친구 사이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울 대방동, 신림동 일대에서 어울려 지냈으며 2006년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정일우는 “민호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외모 등으로 유명해 만나기 전부터 이름을 들었다”며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친구를 통해 서로 알게 돼 친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꽃보다 남자’는 유치하지만 재미있고 뭔가 끄는게 있는 드라마”라며 “친구가 노력하면서 촬영한 것을 아니니까 재미 뒤의 고생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외모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다른 점이 더 많다”며 “민호의 외모는 세고 나는 부드러워 외모 때문에 질투한 적은 없다”고 웃었다. 구준표 역과 일지매 역에 대한 출연 제의를 동시에 다시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자 정일우는 “그래도 나는 구준표보다는 일지매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일지매라는 배역보다는 황인회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정일우는 지난해 7월부터 ‘돌아온 일지매’의 촬영에 매달리고 있다. 액션신이 많은 만큼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뛰들려차기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났고 지독한 몸살 때문에 1주일 가량 앓아눕기도 했다.

고된 촬영과 함께 황인회 PD로부터 강도 높은 연기 지도도 받았다. “나를대로 캐릭터의 콘셉트를 잡아서 연기했지만 초반에는 멋있하게 연기한 것 같아 아쉬워요. ‘로봇처럼 연기한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일지매는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겪으며 영웅으로 변화해 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리바리하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감독님께 훈이 나며 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멜로 연기가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누구와 오랫동안 사귀지 못했다. 2년 반 전에 사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랑보다는 ‘거침없이 하이킥’이 더 중요했다”며 “이제 진짜 사랑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와이어를 이용한 연기에 대해서는 “영화처럼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 초반에는 와이어 타는 티가 났을 것인데 앞으로는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 ‘와호장룡’의 배우처럼 연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며 미소지었다.

이 같은 노련 덕분에 요즘은 ‘일지매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의 철없는 고등학생 분위기를 벗고 선 굳은 남성적인 이미지가 제대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 초반 20%를 넘나들던 시청률이 갈수록 정체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적이 된 후 영웅으로 거듭나는 일지매의 모습이 그려지면 달라질 것”이라며 “원작 만화의 일지매처럼 연기하면서 정일우만의 일지매가 갖는 매력도 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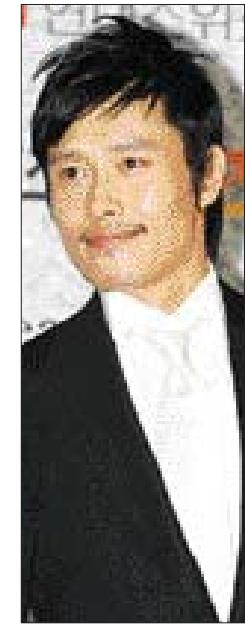
이병헌·김태희의 ‘아이리스’

드라마·영화 동시 제작

이병헌·김태희 주연의 20부작 청보액션 드라마 ‘아이리스’가 영화로도 동시에 제작된다.

‘아이리스’의 제작자 태원프로덕션의 정태원 대표는 11일 “‘아이리스’는 드라마와 함께 영화로도 동시에 제작된다”며 “단순히 드라마 내용을 편집해 영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와는 다른 버전의 영화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드라마 내용을 그대로 2시간 안팎으로 편집해 극장에서 상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드라마와 영화를 각각 다른 버전으로 동시에 제작하는 것은 ‘아이리스’가 처음”이라며 “두 명의 감독에게 연출을 맡긴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t;이병헌&gt;

&lt;김태희&gt;

정 대표는 “드라마는 김규태 PD가 찍게 되며, 영화는 양윤호 감독이 맡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작업도 둘로 나뉘게 되며 촬영 현장에서도 드라마와 영화팀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된다”고 밝혔다.

드라마 ‘아이리스’는 9월부터 K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영화는 드라마가 종영한 뒤 개봉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드라마가 20부작인 만큼 영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벽대전’처럼 2부작 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드라마를 본 사람들에게도 영화는 또 다른 작품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리스’가 이처럼 영화와 드라마 동시 제작을 추진하는 것은 큰 스케일에 맞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다. 이병헌, 김태희, 정준호, 김승우, 빅뱅의 탑 등 한류스타가 대거 캐스팅되고 일본, 러시아, 터키 등을 둘러 촬영할 ‘아이리스’는 제작비 2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아이리스’는 내달 10일 일본 혼슈의 아키타현에서 첫 촬영을 한다.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라인 : 1588-0776-0778

**RADIO**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CBS**

기획교양수필 전문 채널  
CBS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